

# 또 감염원 '불상'...광주 확진 잇따라 "방역수칙 지켜달라"

## 증상 발현 뒤 최대 열흘간 검사 안 받는 등 방역 비협조

### "모임·외출 자제...감염 의심될 땐 곧바로 선별진료소 방문"

광주에서 정확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사례가 잇따르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명 추가됐다.

방역당국은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곧바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등 개인 방역 수칙

엄수를 거듭 강조했다.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명이다. 이들은 광주 749~753번 환자로 등록돼 격리 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 749~752번 환자 등 4명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

일부 환자는 타 지역 확진자와 동선상 접점이 확인됐으나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역학 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

광주 753번 환자는 전북 426번 환자와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 방역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최대 열흘가량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지 않아 추가 감염 확산 위험을 높인

확진자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확진자도 이날 초 증상이 나타났지만 곧바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 방역당국은 선별진료소 방문 이후 지역 곳곳을 다닌 확진자도 있다면서 방역에 협조하지 않은 행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경제활동 ▲가족·직장 외 외부인과의 만남·모임 자제 ▲대화 시 마스크 필수 착용, 식사 시 '말없이' ▲연말 외

부 모임 자제 ▲이상 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 5대 행동강령을 거듭 강조했다.

광주 지역 코로나19 누적 환자는 753명이다. 이 중 지역감염 670명, 해외유입은 83명이다.

격리 병상에서 치료 중인 환자 132명 중 1명은 자가호흡이 어려운 중증 환자다. 나머지 131명은 경증 환자로 분류됐다.

김미희기자



**광주 북구, AI 예방 긴급 방역** 7일 오전 광주 북구 우산동 한 재래시장 내 닭오리 판매업소에서 북구청 농업축산팀 공직자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소독을 하고 있다. 최근 전남 한 육용오리 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확인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 전남사회단체연합 '광주 민간공항 이전' 약속 이행 촉구

###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은 별개의 사안



전남사회단체연합회가 7일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 통합하는 약속 이행을 광주시에 촉구했다.

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용섭 광주시장이 건설교통부 장관일 때 개항한 무안국제공항은

군공항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을 이 시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단체는 "이 시장이 당선인 시절부터 올해 6월 언론 발표까지 군공항 이전과 별개로 조건 없이 민간공항을 이전한다고 약속했으나, 최근 광주시민권익위원회를 내세워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이는 전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 국가정책을 뒤엎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사회단체는 "2018년 8월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국토교통부도 민간공항 통합을 위해 호남KTX 무안공항 경유, 활주로 연장공사,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시·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공항을 배제한 채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선 이전하는 데 80%가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민간공항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일 상생발전위원회를 갖고 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무협의체는 군공항 이전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선옥기자

## '3년 만의 AI 발생' 전남도 감염확산 차단 총력

### 농장별 4단계 소독·종오리농장 전담 역할

전남지역 최대 오리산지인 영암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농장 간 수평 감염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영암군 시종면 한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해당농장 오리 9800마리와 반경 3km 이내 가금류 사육농장 10곳에서 사육 중인 닭 35만9000마리, 오리 13만4000마리 등 총 50만2800마리를 살처분했다.

살처분에는 인력 152명이 투입됐으며, 15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됐다.

농장 간 수평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10km 이내 가금류 사육농가 54호를 대상으로 실시한 AI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나왔다.

방역당국은 AI 발생농장과 같은 계열사 소속인 농장 60호와 차량 출입이 중복된 농장 52호에 대해서도 이날 중 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방역지역 내(10km) 이동통제 초소를 26곳

설치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별 4단계 소독을 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종오리농장별로 전담해 역할을 하고 있다.

AI 발생농장과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 11호에는 생계인정을 위해 보상금을 올해 내 지급할 방침이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현재 AI 발생농장에 대한 감염경로를 파악 중이다"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육용오리 전체 농장을 대상으로 통제초소 180곳을 설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남지역의 닭 사육농가는 2977가구에 2000여 만 마리, 오리는 2677가구에 500만 마리 가량이다.

전남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2018년 1월 이후 2년 11개월 만이다.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는 전북 정읍과 경북 상주에 이어 세 번째다.

김정환기자

## 난방공사 "광주 SRF반입, 나주시가 승인"...근거 제시·반박

### 나주시 행정조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법적조치 불가

전남 나주혁신도시 SRF(고형연료) 발전소 가동 여부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인 '광주권 SRF 반입을 놓고 관할 지자체인 나주시와 발전소 운영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가 지난 1일 발표한 '나주SRF'열병합 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종료에 따른 성명서' 발표 내용에 대해 7일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난방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나주시가 광

주권 SRF 반입에 동의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난방공사는 "나주시가 이미 2013년 8월 회신 공문을 통해 '광주권 SRF 사용에 동의한 적'이 있으며 '이후 2019년 9월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서 수리를 통해 재차 광주권SRF 사용을 승인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신도일반산업단체에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입주계약 체결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다른 발전설비를 설치해 시정명령 절차를

내렸다는 나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난방공사는 "당시 입주계약서에 명시된 사업내용은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냉난방 공급사업'이었고, 공사는 이 사업 계획대로 설비를 구축했기 때문에 나주시가 지적하는 설비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나주시의 시정명령 행정조치로 발전소 가동이 지연돼 발생하는 손해비용은 법적인 조치를 통해 보상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